

247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3. 26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실태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정희운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실태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서울시민 노후준비 어떻게 하나	19
	부록: 2018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24

김 범 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i.re.kr

대표적 내수지표인 서울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7년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전 분기보다 다소 약화되었다. 특히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8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3.6% 하락했다. 그러나 1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했다. 2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0% 하락한 506만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3% 증가한 85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반전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 1/4분기 97.3으로 전 분기 대비 6.0p 하락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하락한 86.1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1.9p 하락한 96.0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도 각각 전 분기 대비 16.9p, 8.0p 하락한 67.1, 86.0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보다 1.3p 상승한 113.3을 기록했지만,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하락한 99.9를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와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모두 기준치(100) 이하이면서 전 분기보다 하락했다. 한편 「물가예상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하여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지고, 물가 불안감은 크게 높아졌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월평균 251.5만 원

조사 대상 서울시민의 49.9%는 현재 노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자금의 준비 방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 ‘부동산/임대수입/역모기지론 등’,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노후 생활비(부부기준)는 월평균 251.5만 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노후생활을 위한 현재의 금전적 준비 수준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못하고 있음’(32.0%), ‘잘하고 있음’(13.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생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시급한 노후대책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 ‘노인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울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세 다소 약화

2017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

- 2017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5.9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전 분기(3.9%)보다 다소 약화
- 금융·보험업(8.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7.5%)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9%), 숙박·음식점업(-2.6%) 등은 감소
- 4/4분기 전국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1.7로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
- 2018년 1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 1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05.7로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하면서 최근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탈피(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3.0%)
- 전국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월 중 4.3% 증가해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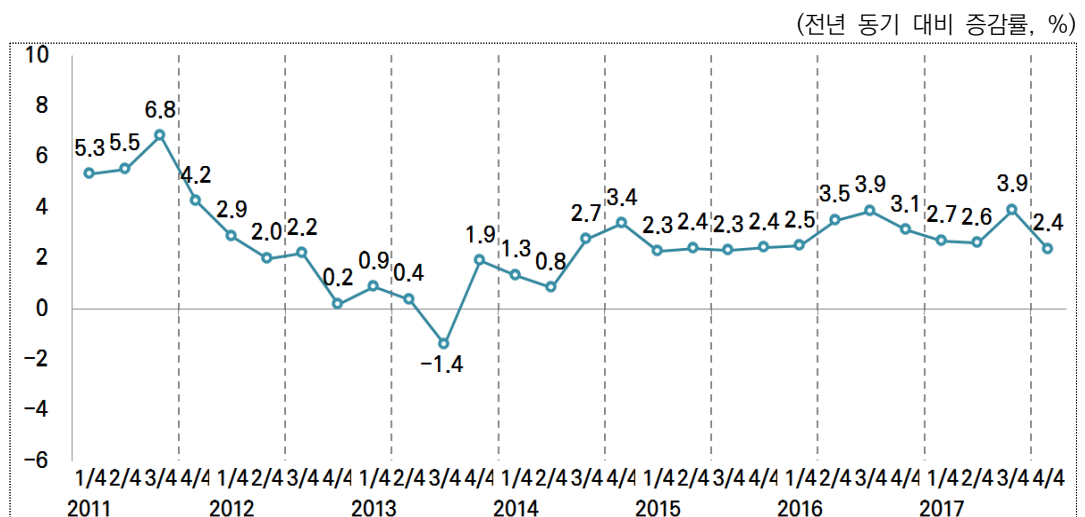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

- 2018년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6% 하락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작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올해 1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하락(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3.4%)
 - 2018년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의 하락률(-13.6%)은 지수가 제공되는 2010년 이후 2015년 1월(-16.6%)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
- 부문별로 보면, 1월 중 백화점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8.6% 하락하였고,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판매액은 21.6%나 감소
 - 백화점 판매액은 작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올 1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3.0%)
 - 대형마트 판매액도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올해 1월에 2015년 1월(-22.9%) 이후 가장 큰 폭인 21.6% 하락(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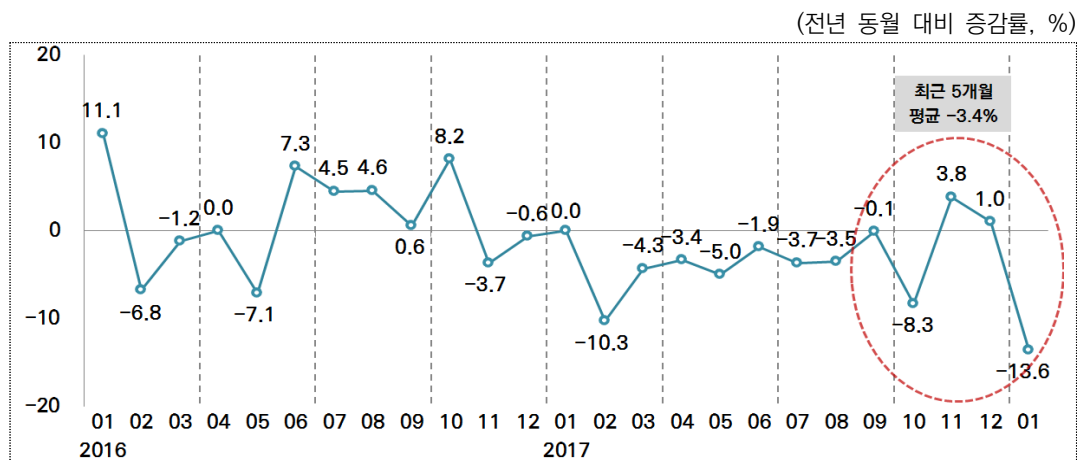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2) 최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수치가 바뀌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시·도별 자료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2010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³⁾는 감소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전월 증가

- 2018년 2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06만 명으로 전년 동월(511만 2천 명)보다 1.0% 감소
-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2018년 1월에 증가했지만, 2월 들어 다시 하락(2018년 1~2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감률 -0.3%)
- 2018년 2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4만 4천 명)보다 1.3% 증가한 85만 5천 명 수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7년 9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2018년 들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2018년 1~2월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 1.2%)
-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전체 취업자 수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하는 등 고용 회복세의 지속과 확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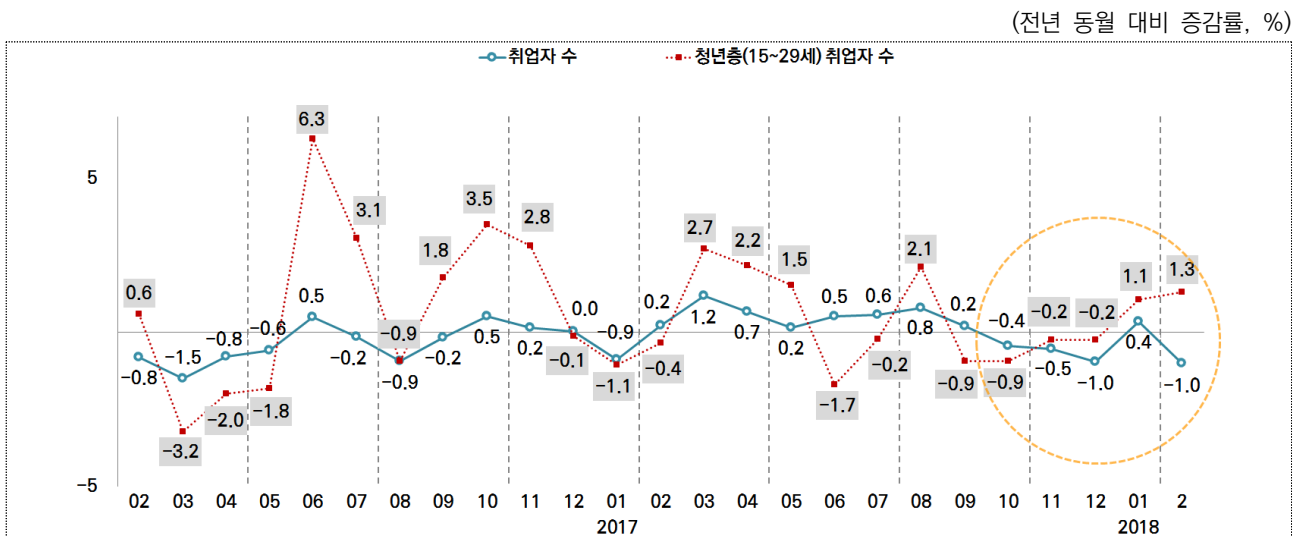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최근 고용통계는 작성 시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시계열 자료도 등록센서스 인구를 적용하여 보정·공표되었다(2018년 2월 14일). 이에 따라 고용통계의 이전 수치는 모두 변경되었다.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반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6.0p 하락

- 2018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97.3으로 전 분기보다 6.0p 하락하면서 3분기 연속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
- 3분기 연속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하였던 「소비자태도지수」가 다시 기준치 이하로 하락
- 1/4분기 이후 「소비자태도지수」의 향방은 주로 고용지표 개선에 좌우될 가능성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북핵 리스크는 이전보다 진정
- 최근 고용지표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약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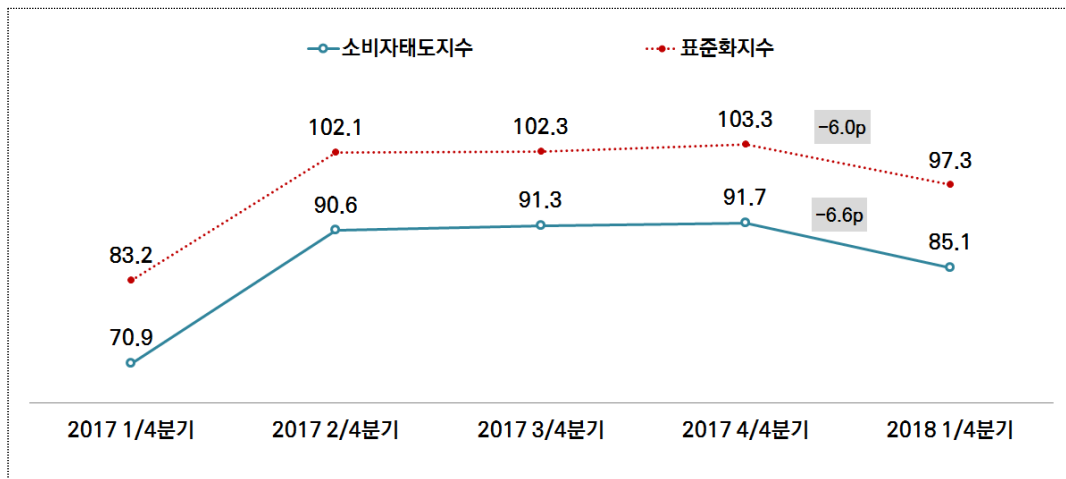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현재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은 전 분기보다 모두 하락

- 1/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동반 하락
 - 2017년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상승하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18년 1/4분기 들어 전 분기 대비 2.1p 하락한 86.1을 기록하였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9p 하락한 96.0을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6,000만 원 이상에서만 상승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하락하였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7,200만 원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부진
- 1년 후 가구의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감소’
 - ‘가계소득 감소’가 34.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물가 상승’ 20.7%, ‘경기 불황’ 17.4%, ‘지출비용 증가 예정’ 16.4% 등의 순
 - 소득계층별로 보면, 연 가구소득 7,200만 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득 감소’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소득 감소’를 가장 주된 이유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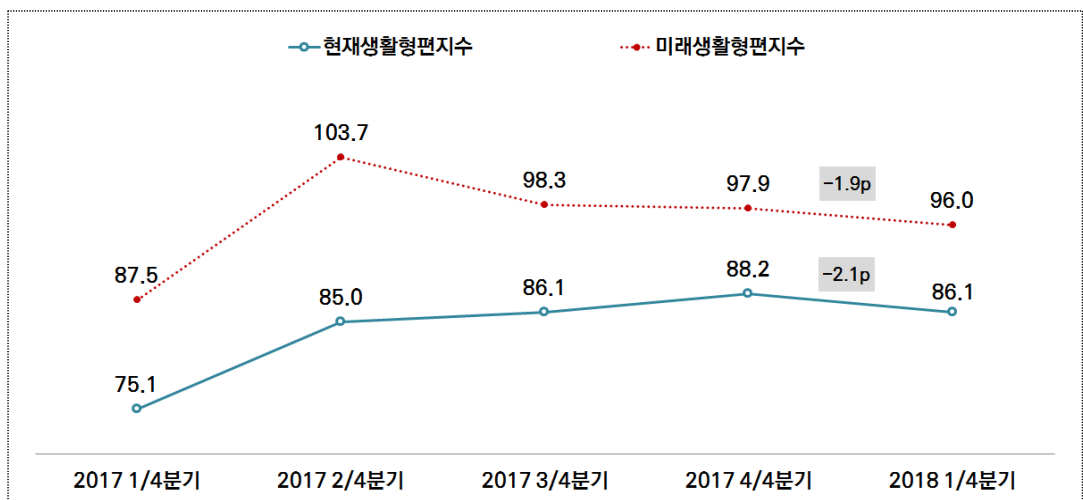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

-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북권이 9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그다음은 동남권(89.8), 서남권(87.7), 도심권(84.6) 등의 순이며, 동북권이 8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전반적으로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기준치(100) 이하로 낮은 편
-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
 - 특히 동대문, 성동, 중랑 등 동북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1/4분기에 80.5를 기록해 전 분기(94.5)에 견줘 14.0p나 하락
 - 도심권은 전 분기보다 1.0p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권역은 모두 전 분기 대비 2~5p 이내로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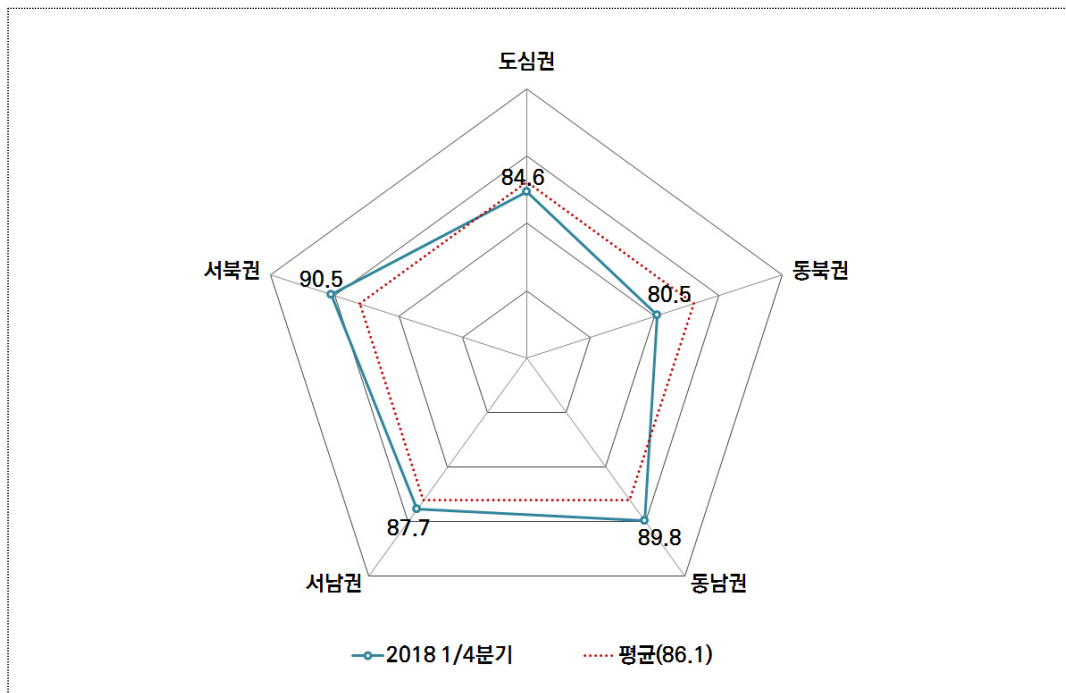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2018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7.1로 전 분기 대비 16.9p 하락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1/4분기에 16.9p 급락하면서 2분기 연속 하락
 - 「현재경기판단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급락 등 내수 부진 속에 고용지표 개선의 체감도가 아직 미약하여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를 좋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
 - 특히 가구주 연령별로 본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0대 이하 82.7, 40대 67.0, 50대 63.1, 60대 55.1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경기에 더 비관적
- 2018년 1/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보다 8.0p 하락한 86.0을 기록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17년 2/4분기에 110.1로 기준치(100)를 웃돈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80대 수준을 기록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특히 60대의 지수 수준은 77.4로 유일하게 80 이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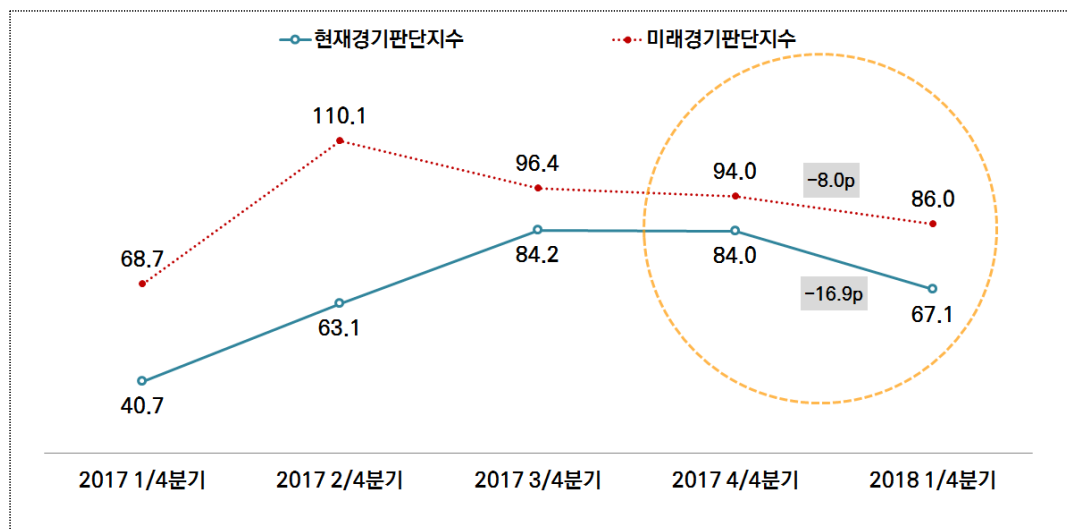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막연한 불안감 등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물가 상승’, ‘소비 지출 감소’,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조사
- ‘물가 상승’이 44.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18.5%), ‘막연한 불안감’(12.0%), ‘부동산 경기 부진’(7.6%), ‘투자심리 악화’(5.6%) 등의 순
- 특히 가구주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시민들의 향후 물가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
- ‘물가 상승’의 응답비율은 전 분기 대비 15.0%p나 상승하였고, ‘부동산 경기 부진’은 전 분기보다 9.0%p 낮아진 것으로 조사
- 최근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상승(2017년 11월 -0.6% → 12월 0.3% → 2018년 1월 0.4% → 2월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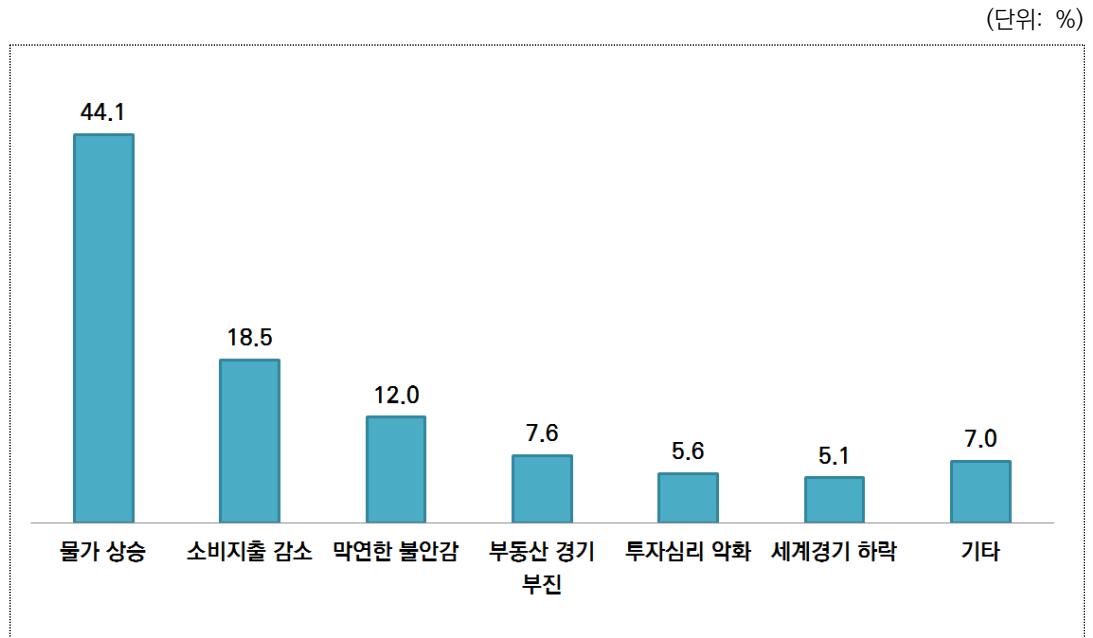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소폭 하락

- 2018년 1/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3.3으로 전 분기 대비 1.3p 소폭 상승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14년 1/4분기부터 꾸준히 기준치(100) 이상을 유지
 - 가구주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40대만 전 분기 대비 0.9p 소폭 하락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400만~3,6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이 11.2p로 가장 크게 상승한 반면, 3,600만~4,8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은 -8.2p로 가장 크게 감소
- 2018년 1/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9.9로 전 분기보다 1.1p 하락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17년 3/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지만, 올해 1/4분기에 99.9로 기준치를 소폭 하회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와 50대는 전 분기보다 하락하고 40대와 60대는 전 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
 - 연 가구소득별로 보면, 4,800만~6,000만 원 미만 소득계층만 전 분기 대비 1.9p 상승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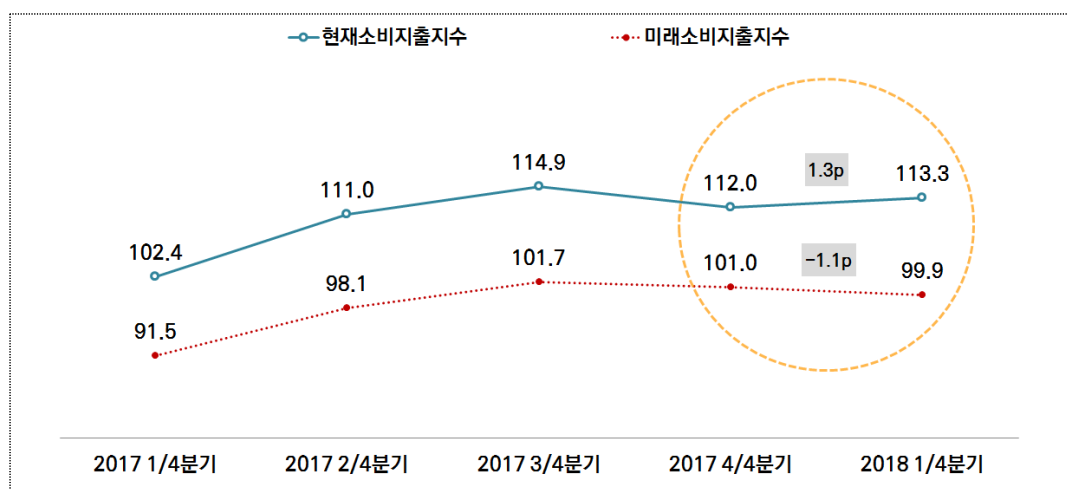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만 상승하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하락

- 2018년 1/4분기 ‘식료품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101.4로 전 분기 대비 0.7p 상승
 - ‘식료품비’는 2017년 3/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
- 2018년 1/4분기 ‘교육비’, ‘교통·통신비’, ‘주거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전 분기보다 하락
 - 1/4분기 ‘교육비’ 지수는 111.0으로 전 분기 대비 1.6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1/4분기 ‘교통·통신비’ 지수는 100.8로 전 분기보다 0.9p 하락
 - 1/4분기 ‘주거비’ 지수는 104.1로 전 분기 대비 0.1p 소폭 하락
- 이에 비해 2018년 1/4분기 ‘의류비’, ‘문화·오락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뿐 아니라 전 분기보다 하락
 - 1/4분기 ‘의류비’ 지수는 88.3으로 전 분기 대비 3.4p 하락하였는데, 조사 대상 품목 중 지수 수준이 가장 낮고 하락폭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1/4분기 ‘문화·오락비’ 지수는 전 분기보다 1.5p 하락한 93.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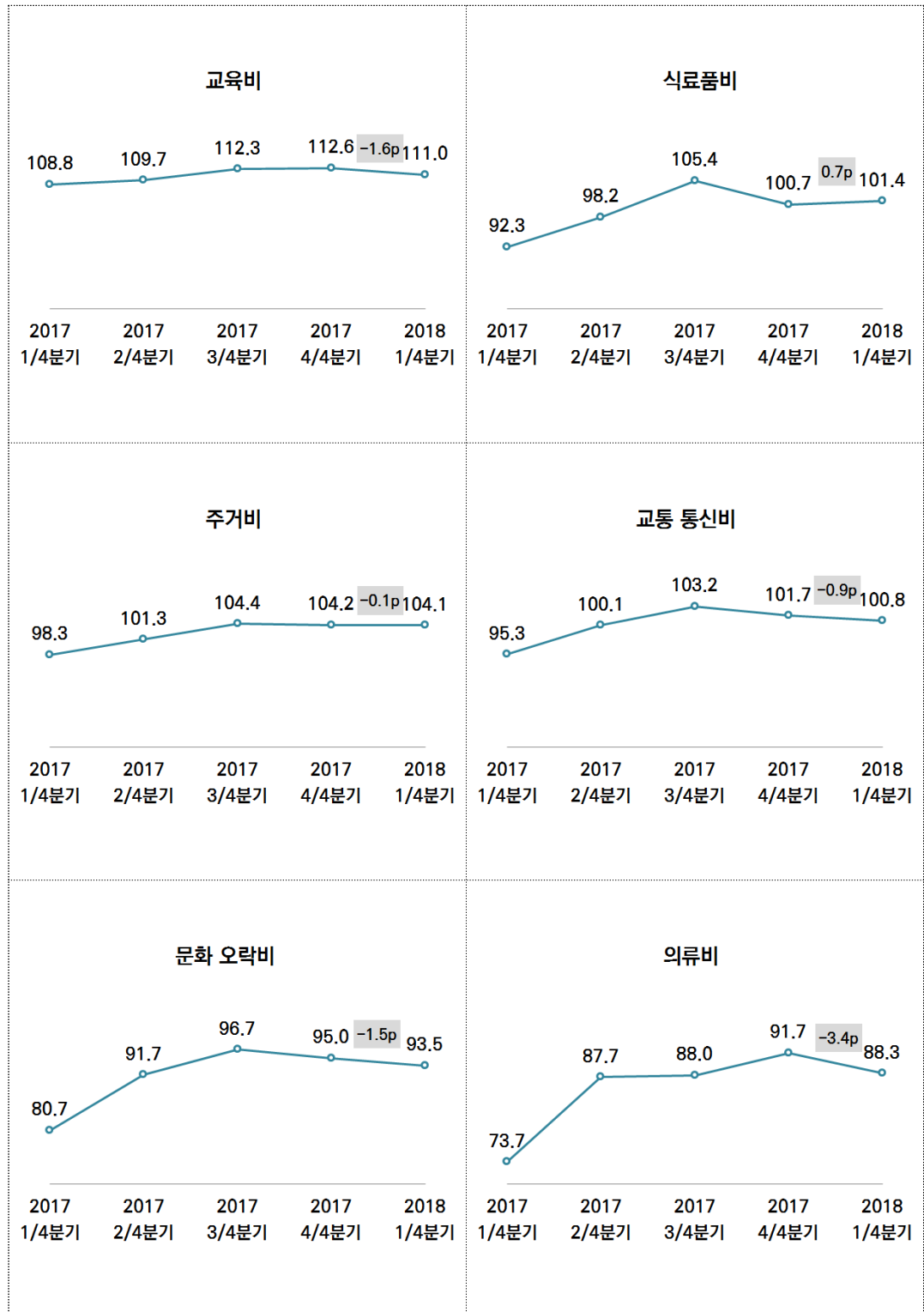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의사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하고 기준치 이하

- 2018년 1/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3.8p 하락한 90.6
 -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에 비록 기준치(100) 이하였어도 3분기 연속 상승하며 2014년 4/4분기(94.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4분기에 90.6으로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만 전 분기보다 2.6p 상승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
- 2018년 1/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7.4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뿐 아니라 전 분기보다 3.4p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0대에서만 전 분기보다 0.4p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부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대출부담, 부동산 투기대책 강화 등으로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심리는 아직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
 -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7년 9월 3.24%에서 2018년 1월 3.47%까지 4개월 연속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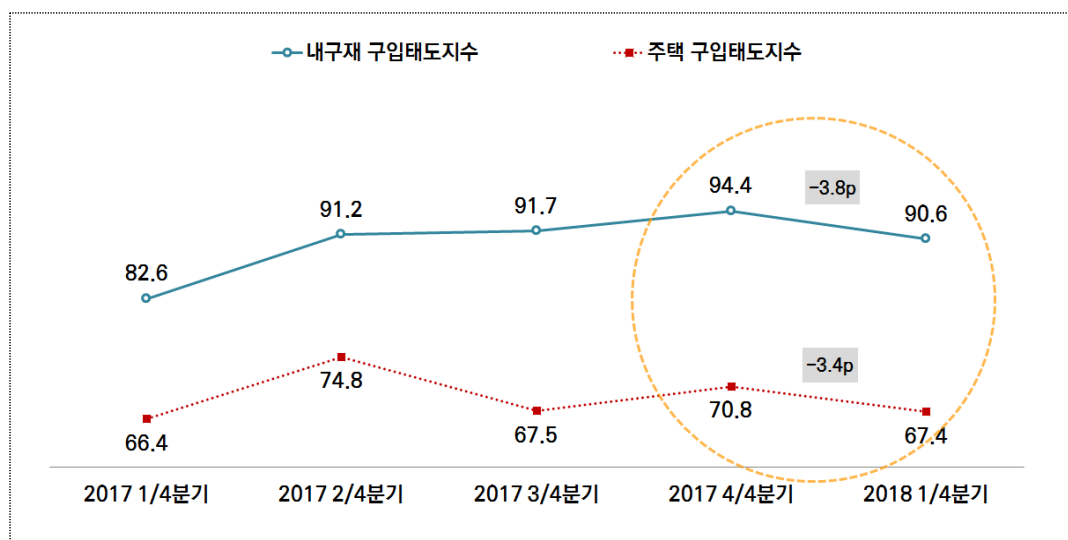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의사는 도심권만 상승하고 모두 하락

- 2018년 1/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하락
 - 서북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4.1로 전 분기 대비 -13.2p로 가장 크게 하락
 - 동북권과 동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각각 전 분기보다 4.7p, 2.2p 하락한 68.6, 63.0으로 조사
 - 서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하락했으나, 지수 수준은 권역 중 가장 높은 70.5를 기록
 - 도심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6.3p 상승한 68.7을 기록
-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의사는 대다수 권역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하고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여전히 주택 구입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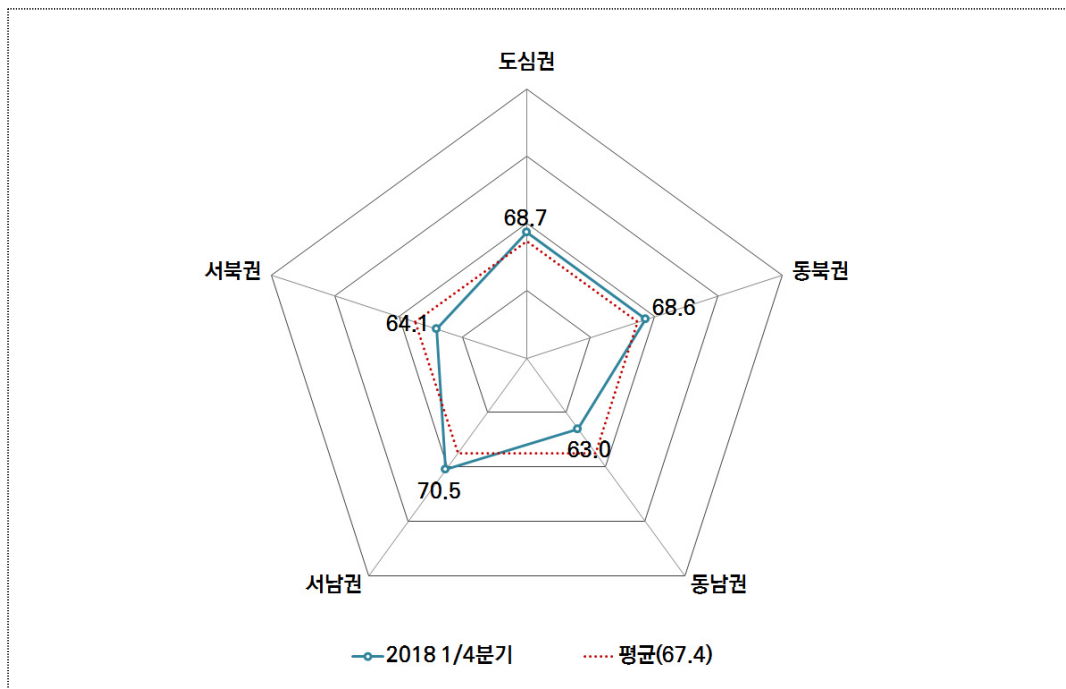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물가예상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

- 2018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44.5로 전 분기 대비 7.4p 상승
 - 「물가예상지수」는 2017년 1/4분기(146.5) 이후 4분기 만에 다시 140대로 상승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물가예상지수」는 모두 140대이지만, 특히 30대 이하가 전 분기 대비 12.1p 상승한 149.3으로 지수 수준과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18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보다 1.7p 하락한 97.7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채가 늘었다’(28.6%), ‘지출이 늘었다’(17.3%) 등의 순으로 조사
- 2018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8.4로 전 분기 대비 11.7p 하락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7년 2/4분기 111.7로 기준치(100)를 상회한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70대까지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 「고용상황전망지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모든 연령층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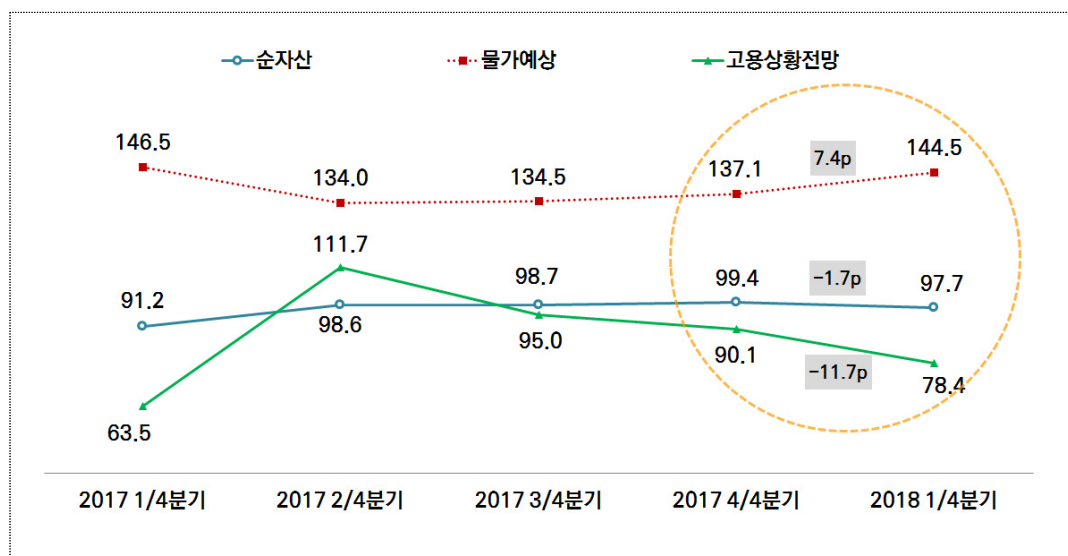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 부채 보유 가구는 전 분기보다 증가

- 2018년 1/4분기에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65.7%로 전 분기 대비 3.3%p 증가
-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가 69.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대(68.1%), 30대 이하(66.5%), 60대(54.8%)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21.0%로 전 분기 대비 3.1%p 증가
-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여전히 '주택관련 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주택관련 자금'이 52.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업 자금'(17.7%), '생활 자금'(17.4%), '재테크'(4.2%), '자녀 교육비 및 학자금'(4.1%)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기준으로 보면, '주택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1.8%와 40.8%로 가장 높은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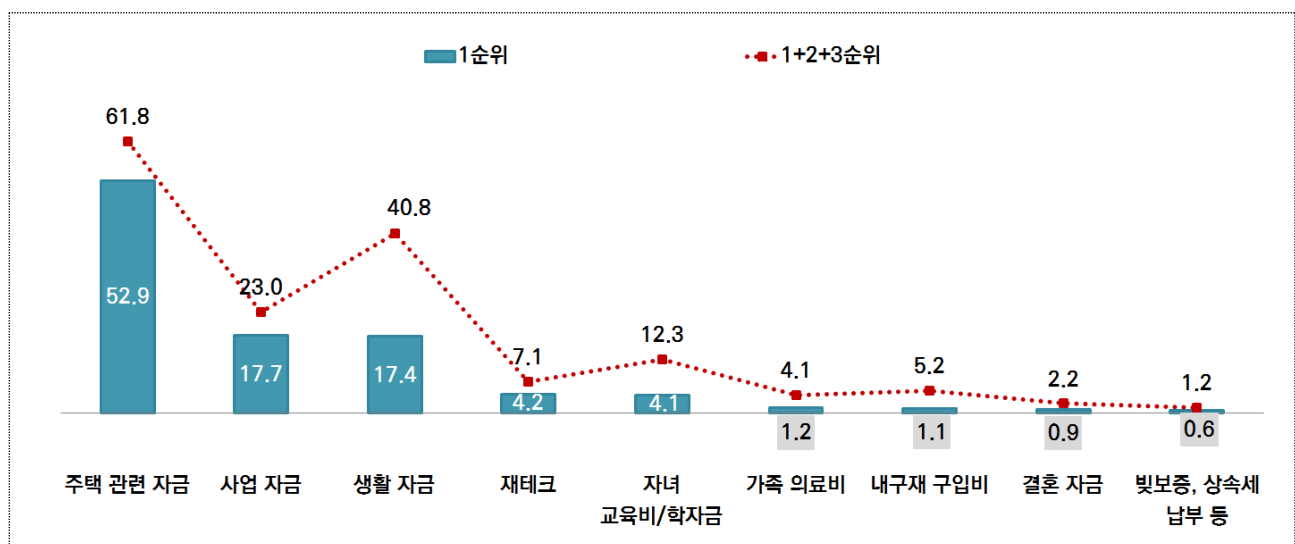


그림 14.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서울시민 노후준비 어떻게 하나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51.5만 원

서울시민은 주로 '65세 이상'을 노후로 인식

- 서울시민이 노후로 생각하는 시기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편
- '65세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36.4%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70세 이상'(26.5%), '60세 이상'(25.3%) 등의 순
- 노후로 인식하는 시기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60세 이상', 40대와 50대는 '65세 이상', 60대는 '70세 이상'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노후 인식 시점이 높아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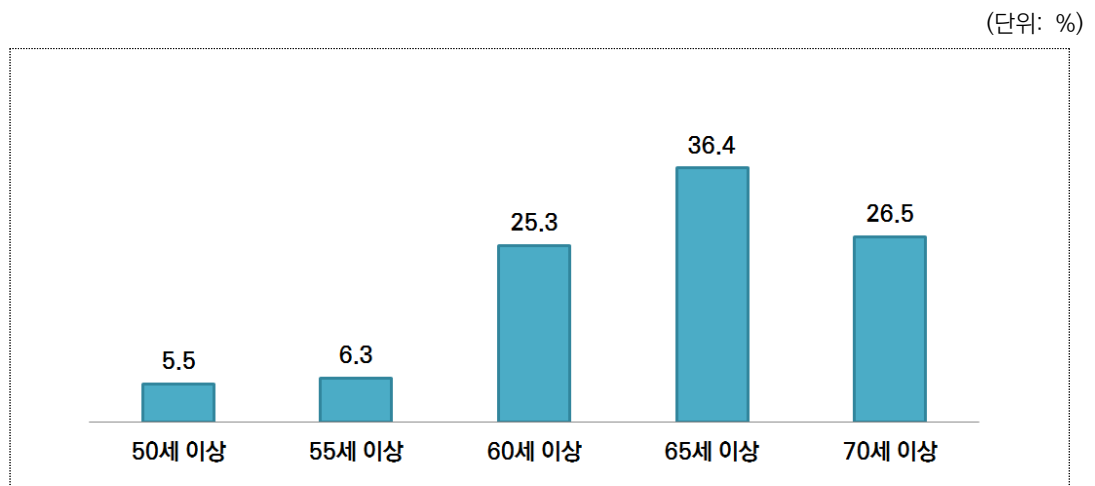


그림 15. 노후라고 생각하는 시기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는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중

- 노후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 중'이 49.9%로 약 절반을 차지
- 그다음은 '노후준비 못함'(28.9%), '준비할 예정'(14.6%), '준비를 다 함'(6.5%) 등의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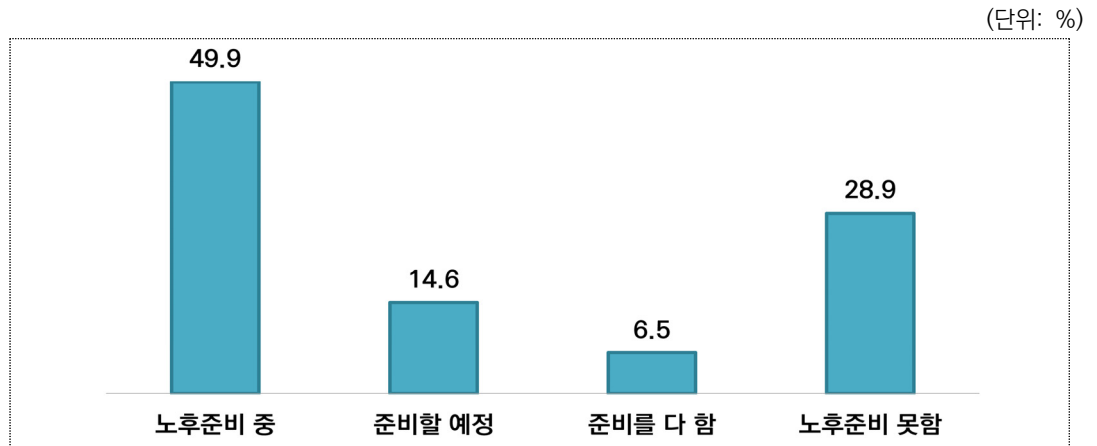


그림 16. 노후준비 여부

서울시민의 노후생활자금 준비 방식은 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존

- 노후생활자금 준비 방식의 응답 결과를 보면, 1순위 및 1~2순위 합계 모두 ‘공적연금’이 1위이고, 그다음은 ‘사적연금’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49.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25.0%), ‘부동산/임대수입/역모기지론 등’(10.8%),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10.6%) 등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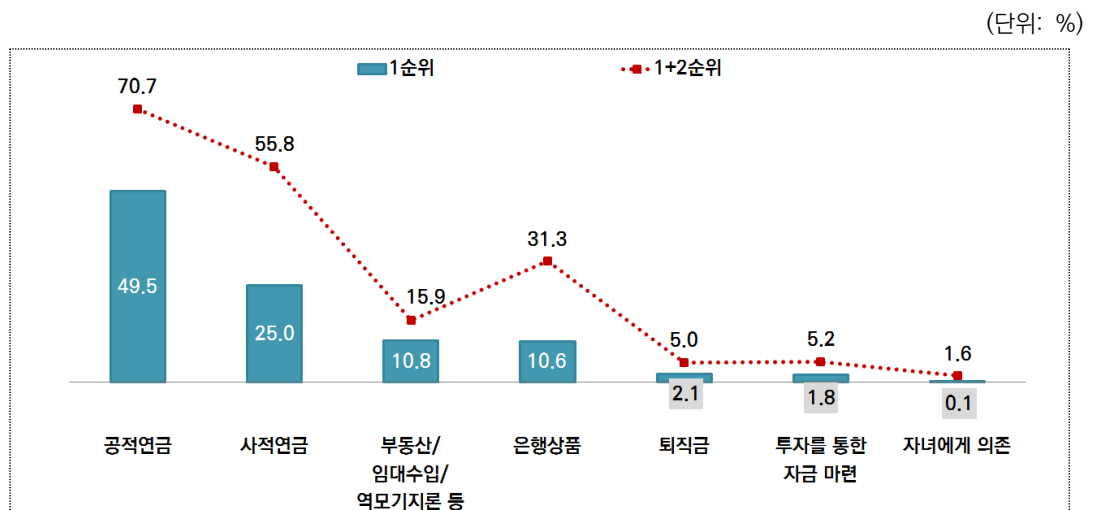


그림 17. 노후생활자금 준비 방식

- 연령별로 보더라도 모든 연령층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응답비율이 각각 1위, 2위로 높지만, 60대는 ‘부동산/임대수입/역모기지론 등’(20.8%), 30대 이하는 ‘은행상품’(16.5%)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1~2순위 합계결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70.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55.8%),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31.3%) 등의 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월평균 251.5만 원

- 서울시민은 노후 생활비(부부기준)로 월평균 251.5만 원이 적정하다고 인식
- 구간별 비율을 보면, ‘200만~300만 원 미만’이 46.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0만~400만 원 미만’ 27.4%, ‘100만~200만 원 미만’ 16.2% 등의 순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30대 이하가 267.7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259.1만 원), 50대(245.3만 원), 60대(230.4만 원) 등의 순으로 응답
- 전반적으로 응답한 적정 노후생활비의 금액은 연령이 낮을수록 커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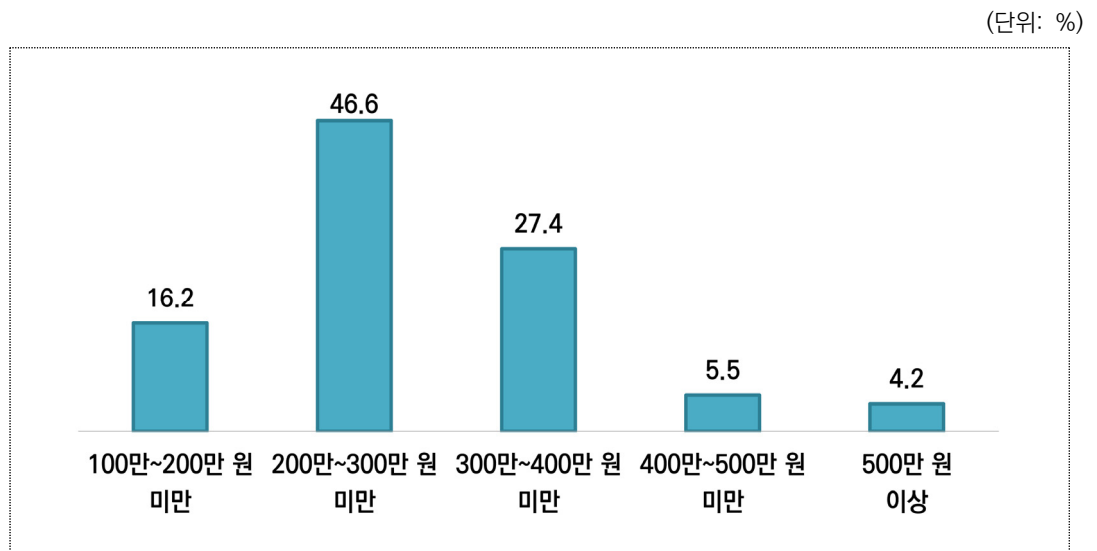


그림 18.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부부 기준)

대부분 노후생활을 위한 현재의 금전적 준비 수준이 ‘보통’이거나 ‘부족’하다고 인식

- 현재 노후생활을 위한 금전적 준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못하고 있음’(32.0%), ‘잘하고 있음’(13.4%) 등의 순으로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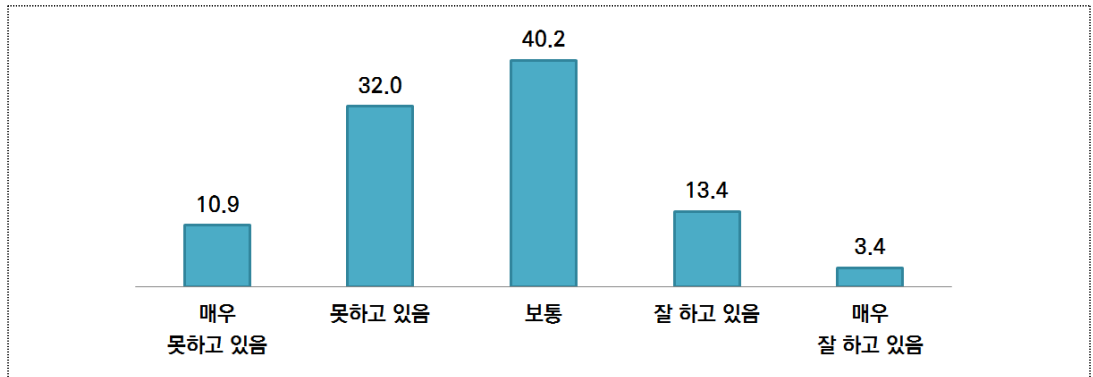


그림 19. 현재 노후생활을 위한 금전적 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

- 노후생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
- 1순위 기준으로 노후생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 때문’이 43.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이 많아서’(21.8%), ‘아직 노후준비에 관심이 없어서’(12.4%) 등의 순으로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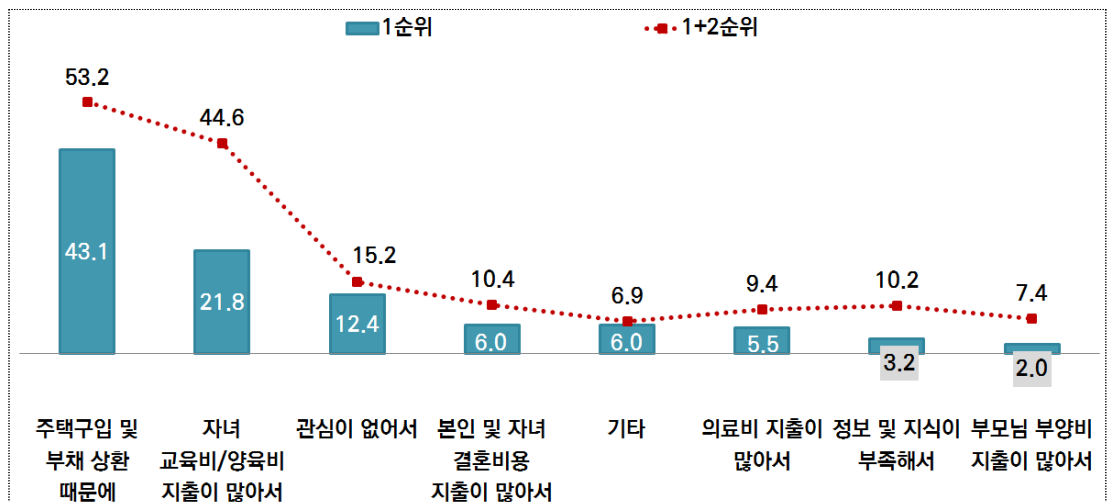


그림 20. 노후생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이유

-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 때문에’가 가장 높은 편
- 1~2순위 합계 결과도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 때문에’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이 많아서’(44.6%), ‘아직 노후준비에 관심이 없어서’(15.2%) 등의 순으로 유사

가장 시급한 노후대책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 서울시민은 서울시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
 -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42.7%로 ‘모른다’는 응답비율(57.3%)을 14.6%p 하회
 -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복지정책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노인복지정책 인지 비율: 30대 이하 31.1%, 40대 41.9%, 50대 47.7%, 60대 49.7%)
- 서울시민은 노후대책으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
 - 가장 시급한 노후대책으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응답비율 40%를 기록해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노인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20.6%), ‘치매국가책임제도 확대’(17.8%), ‘기초노령 연금제도 수급액 및 대상 확대’(11.9%) 등의 순으로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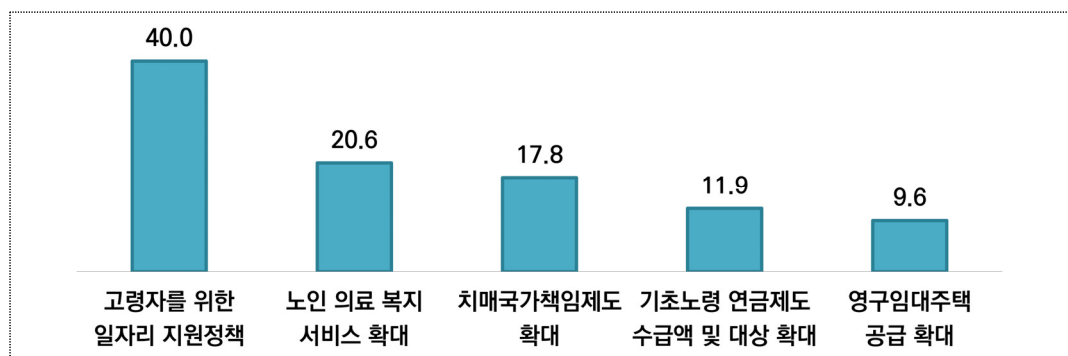


그림 21. 노후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

부록: 2018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18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2로 전월 대비 1.7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7년 1/4분기	83.2	75.1	87.5	40.7	68.7	82.6	66.4
2017년 2/4분기	102.1	85.0	103.7	63.1	110.1	91.2	74.8
2017년 3/4분기	102.3	86.1	98.3	84.2	96.4	91.7	67.5
2017년 4/4분기	103.3	88.2	97.9	84.0	94.0	94.4	70.8
2018년 1/4분기	97.3	86.1	96.0	67.1	86.0	90.6	67.4

주: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7년 1/4분기	102.4	91.5	91.2	63.5	146.5
2017년 2/4분기	111.0	98.1	98.6	111.7	134.0
2017년 3/4분기	114.9	101.7	98.7	95.0	134.5
2017년 4/4분기	112.0	101.0	99.4	90.1	137.1
2018년 1/4분기	113.3	99.9	97.7	78.4	144.5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08\%$ p임(2018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18년 2월 5일~2월 22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